

---

# 주요국 예산안 - 캐나다

---

2018. 3.

## 연구책임자

윤성주 센터장

김우현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김진아 전문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	1
가. 경제전망 .....	1
나. 재정전망 .....	2
2. 예산기조 .....	4
3. 예산안 내용 .....	5
가. 세입 .....	5
나. 세출 .....	8
4. 주요 재정정책 .....	11
가. 평등과 성장 .....	11
나. 재정건전화 .....	14

## 캐나다

□ FY2018-19 : 2018.4~2019.3

□ 출처

○ Budget 2018 (2018.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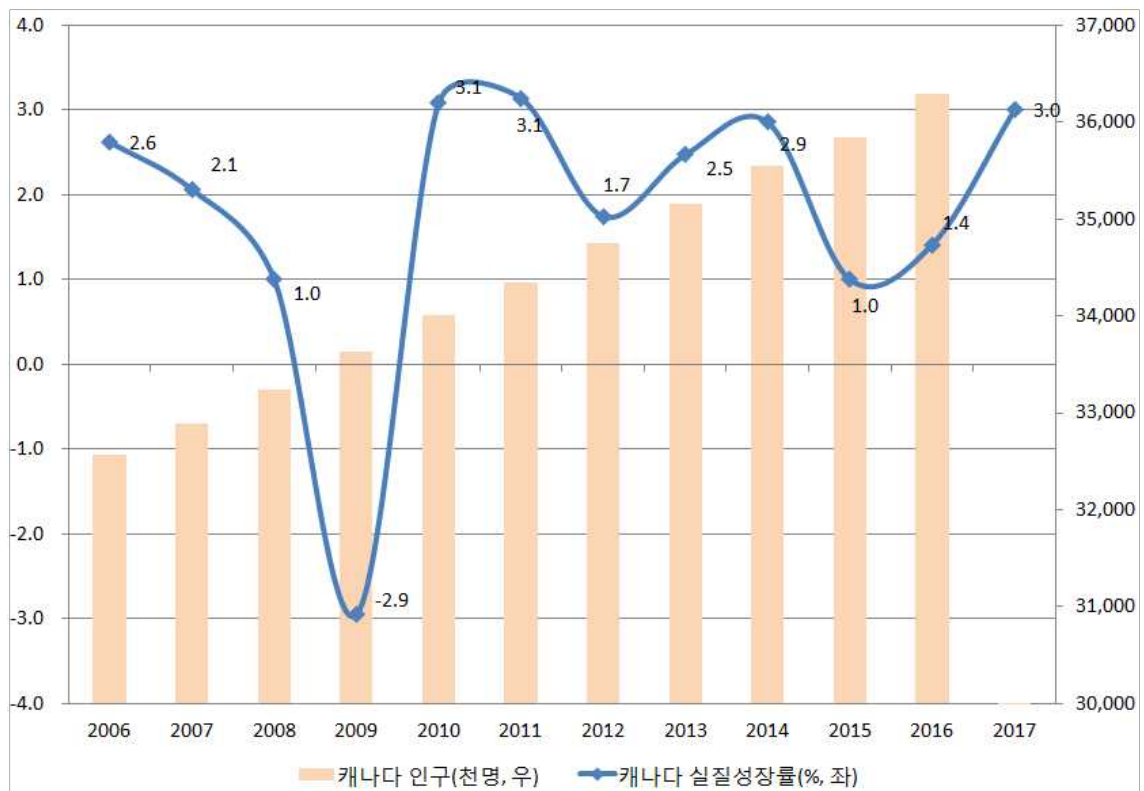
□ 환율 : 1캐나다달러 = 871.68원 (2017년 평균)

□ 경제규모 : 2017년 경상 GDP 1조 7,018억 달러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 2017년 기준 64.1%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약 77.7%)

□ 인구 : 2016년 약 3,629만명

□ GDP 성장률 및 인구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8년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은 각각 2.2%, 4.0%,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6.0%, 1.9%로 전망
- (재정전망) FY2018-19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6.7% 감소한 181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8-19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는 30.1% 수준으로 전망

□ 예산기조

- FY2018 예산안은 「강한 중산층을 위한 평등과 성장(Equality+Growth: A Strong Middle Class)」을 주제로, 중산층 강화와 공평한 기회 확대에 중점 투자
  - 성장, 진보, 조화, 발전, 평등에 대한 5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 제시

□ 세입 및 세출

- (세입) FY2017-18 총세입은 강한 경제성장세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5.5% 증가한 3,096억 캐나다달러, FY2018-19 총세입은 FY2017-18 대비 4.5% 증가한 3,234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4.5%)로 전망
- (세출) 총세출은 FY2017-18 전년대비 6.1% 증가한 3,046억 캐나다달러, FY2018-19 전년대비 2.5% 증가한 3,122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중산층 강화 및 양성평등) FY2018 캐나다 예산안에서는 중산층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예산 전반에 GBA+ 분석 도입을 통한 여성경제활동 촉진 등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강조
- (재정건전화) FY2018 캐나다 예산안에서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을 향후 FY2022-23까지 각각 GDP 대비 0.5%, 28.4% 수준으로 감소할 계획임을 발표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실질 GDP 성장률) 2018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17년 가을경제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이하 FES) 전망 대비 0.1%p 상향 조정된 2.2%로 전망
  - 2017~2022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017년 FES 전망과 동일한 2.0%로 전망
- (명목 GDP 성장률) 2018년 명목 GDP 성장률은 2017년 FES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된 4.0%로 전망
- (실업률) 2018년 실업률은 2017년 FES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된 6.0%로 전망
  - 2017~2022년 평균 실업률은 2017년 FES 전망 대비 0.2%p 하락한 6.1%로 전망
    - 2015.11월 이후 약 6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캐나다 실업률은 5.9% (2017.11월 기준)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는 최근 40년 간 가장 낮은 수준
- (물가상승률) 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FES 전망과 동일한 1.9%로 전망
  -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2.0%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표 1> 캐나다 경제전망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7-22
실질GDP 성장률	2017 FES	3.0	2.1	1.6	1.7	1.7	1.8	2.0
	Budget 2018	3.0	2.2	1.6	1.7	1.6	1.8	2.0
명목GDP 성장률	2017 FES	5.5	4.1	3.4	3.7	3.6	3.8	4.0
	Budget 2018	5.2	4.0	3.5	3.8	3.6	3.8	4.0
실업률	2017 FES	6.5	6.3	6.3	6.4	6.3	6.1	6.3
	Budget 2018	6.4	6.0	6.0	6.1	6.0	6.0	6.1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17 FES	1.6	1.9	1.9	1.9	1.9	2.0	1.9
	Budget 2018	1.6	1.9	2.0	1.9	1.9	2.0	1.9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2018.2.27.) Table A2.1 일부 발췌

## 나. 재정전망

- (재정수지) FY2018-19 재정적자는 181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0.8%)이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FY2022-23에는 123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0.5%)를 기록할 전망
- (총세입) FY2018-19 총세입은 전년대비 138억캐나다달러(4.5%) 증가한 3,234억 캐나다 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FY2022-23까지 GDP 대비 총세입 비율은 14.5% 수준으로 유지
- (총세출) FY2018-19 총세출은 전년대비 95억 캐나다달러(2.9%) 증가한 3,385억 캐나다 달러 규모로 전망
  - FY2018-19 프로그램 지출은 전년대비 2.5%(76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3,122억 캐나다 달러, 이자지출은 전년대비 7.8%(19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263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연방채무)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sup>1)</sup> 비율은 FY2018-19에는 30.1%(6,696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28.4%(7,301억 캐나다 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1) 공식채무지표로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를 사용하며, 연방채무는 이 자지급채무와 외상매입 등을 포함한 부채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표 2> 캐나다 재정전망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6-17	Projection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총수입	293.5	309.6	323.4	335.5	348.0	362.1	373.9
총지출	311.3	329.0	338.5	350.0	361.9	372.9	383.2
프로그램지출	287.2	304.6	312.2	321.5	331.5	340.7	350.1
이자지출	24.1	24.4	26.3	28.6	30.3	32.2	33.1
위험조정			-3.0	-3.0	-3.0	-3.0	-3.0
재정수지	-17.8	-19.4	-18.1	-17.5	-16.9	-13.8	-12.3
연방채무 <sup>1</sup>	631.9	651.5	669.6	687.1	704.0	717.8	730.1
GDP 대비 비중(%)							
총수입	14.4	14.5	14.5	14.5	14.5	14.6	14.5
프로그램지출	14.1	14.2	14.0	13.9	13.8	13.7	13.6
이자지출	1.2	1.1	1.2	1.2	1.3	1.3	1.3
재정수지	-0.9	-0.8	-0.8	-0.8	-0.7	-0.6	-0.5
연방채무	31.0	30.4	30.1	29.8	29.4	28.9	28.4

주: 1. FY2017-18 연방 채무 전망치에 기타 포괄 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2018.2.27.) Table A2.6 일부 발췌

<표 3> 2017년 FES 이후 조정내역

(단위 : 십억 캐나다달러)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b>2017 FES 재정수지(위험조정 포함)<sup>1)</sup></b>	<b>-19.9</b>	<b>-18.6</b>	<b>-17.3</b>	<b>-16.8</b>	<b>-13.9</b>	<b>-12.5</b>
<b>2017 FES 재정수지(위험조정 제외)</b>	<b>-18.4</b>	<b>-15.6</b>	<b>-14.3</b>	<b>-13.8</b>	<b>-10.9</b>	<b>-9.5</b>
2017 FES 이후 경제 및 재정적 요인에 의한 조정	3.0	3.6	4.1	3.5	2.8	2.8
2017 FES 이후 정책 및 Budget 2018 투자에 의한 조정	-4.0	-3.1	-4.3	-3.6	-2.7	-2.6
<b>재정수지</b>	<b>-19.4</b>	<b>-15.1</b>	<b>-14.5</b>	<b>-13.9</b>	<b>-10.8</b>	<b>-9.3</b>
위험조정		-3.0	-3.0	-3.0	-3.0	-3.0
<b>Budget 2018 재정수지</b>	<b>-19.4</b>	<b>-18.1</b>	<b>-17.5</b>	<b>-16.9</b>	<b>-13.8</b>	<b>-12.3</b>

주: 1) -는 재정적자요인의 증가, +는 재정적자요인 감소를 의미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2018.2.27.), Table A2.2 일부 발췌

## 2. 예산기조

- FY2018 예산안은 「강한 중산층을 위한 평등과 성장(Equality+Growth: A Strong Middle Class)」을 주제로, 모든 캐나다 국민이 미래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
  - 캐나다 정부는 중산층 강화와 캐나다의 장기경제성장률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며, 2018 예산안에서도 중산층을 위한 투자 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캐나다 국민의 기술향상 및 공평한 기회 확대에 중점 투자할 계획
  - 이번 예산안에서는 성장(Growth), 진보(Progress), 조화(Reconciliation), 발전(Advancement), 평등(Equality)에 대한 5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을 제시
  - 특히, 2018 예산안에서는 GBA+(Gender-Based Analysis Plus)<sup>2)</sup>를 도입하여 각 정책들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캐나다 정부는 여성 경제참여 촉진과 직장 내 양성평등이 경제성장률 상승 및 중산층 강화에 귀결된다고 언급
    - 캐나다 정부는 여성의 평등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GDP의 4%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고령화 효과도 부분적으로 상쇄시킬 것으로 예상
  - 2018년 예산안도 전년과 동일하게 적자재정(181억 캐나다달러)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노동참여율 증가, 소비·투자 증대 등을 통한 경기부양을 기대

---

2) GBA+는 우리나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유사한 개념이며 남성과 여성 간 양성평등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요소들(인종, 민족, 종교, 나이, 신체 등)을 고려하는 정책분석도구임

### 3. 예산안 내용

#### 가. 세입

- FY2017-18 총세입은 강한 경제성장세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FY2018-19 총세입은 FY2017-18 대비 4.5% 증가한 3,234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4.5%), 이후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조세수입) FY2017-18 조세수입은 전년대비 180억 캐나다달러(7.4%) 증가한 2,623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2.2%)로 전망
  - (개인소득세) 총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 수입은 FY2017-18 전년대비 86억 캐나다달러(6.0%) 증가한 1,523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전망
    - 개인소득세의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소득세제시스템의 누적적 성격과 개인소득 증가로 인해 명목 GDP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법인세) FY2017-18 법인세 수입은 기업이익 증대 등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60억 캐나다달러(14.2%) 증가한 482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3.4% 증가 전망
    - 이월결손금 공제, 중소기업 법인세 하락(2019년 9%)에 기인하여 법인세 수입은 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게 증가할 전망
  - (비거주자 소득세) 비거주자 소득세는 기업이익 증대에 따른 배당금, 투자 및 이자소득의 증가에 기인하여 FY2017-18에는 전년대비 11억 캐나다달러(15.2%) 증가한 82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9% 증가 전망
  - (재화 및 용역세) FY2017-18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전년대비 6.2% 증가할 전망이며, 과세대상 소비전망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관세) FY2017-18 관세수입(Customs import duties)은 전년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시행으로 향후 5년간 관세 수입은 연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타 소비세) FY2017-18 기타 소비세(Other Excise Taxes/Duties)는 전년대비 0.8% 증가한 116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3% 증가할 전망
- (고용보험) FY2017-18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EI) 수입은 '7년 손익분기율 매커니즘(seven-year break-even rate mechanism)'에 의거하여 전년대비 7.1% 감소할 전망
  - ※ 7년 손익분기율 매커니즘(seven-year break-even rate mechanism) : 7년간 고용보험료 수입이 고용보험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는데 필요한 수준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7년 손익분기율 전망을 기반으로 매년 보험료를 재설정
- 2018년 고용보험요율 상향 조정(1.66%) 및 2018년 예산안에서의 고용보험 관련 정책들의 영향으로 향후 전망기간동안 고용보험 수입은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기타 세입) FY2017-18 기타 세입은 전년대비 1.1% 감소, FY2018-19는 9.7% 증가할 전망

<표 4> 세입전망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GDP대비 %)

	2016-17	Projection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총 소득세(A)	193.0	208.6	217.0	225.0	233.2	243.0	251.2
개인소득세	143.7	152.3	161.4	168.6	175.2	182.8	190.0
법인세	42.2	48.2	47.3	47.9	49.4	51.4	52.2
비거주자소득세	7.1	8.2	8.3	8.5	8.7	8.8	9.0
총 소비세(B)	51.3	53.7	55.4	56.7	58.4	60.2	62.0
재화 및 용역세	34.4	36.5	37.7	39.2	40.6	42.0	43.5
관세	5.5	5.5	5.5	5.3	5.4	5.5	5.7
기타소비세	11.5	11.6	12.1	12.3	12.5	12.7	12.8
<b>총 조세수입(C=A+B)</b>	<b>244.3</b>	<b>262.3</b>	<b>272.3</b>	<b>281.7</b>	<b>291.6</b>	<b>303.2</b>	<b>313.2</b>
고용보험(D)	22.1	20.6	21.7	22.6	23.3	24.1	25.0
기타 세입(E)	27.1	26.8	29.4	31.3	33.1	34.8	35.8
<b>총 세입(F=C+D+E)</b>	<b>293.5</b>	<b>309.6</b>	<b>323.4</b>	<b>335.5</b>	<b>348.0</b>	<b>362.1</b>	<b>373.9</b>
GDP 대비 비중(%)							
개인소득세	7.1	7.1	7.2	7.3	7.3	7.4	7.4
법인세	2.1	2.3	2.1	2.1	2.1	2.1	2.0
재화 및 용역세	1.7	1.7	1.7	1.7	1.7	1.7	1.7
<b>총 조세수입</b>	<b>12.0</b>	<b>12.2</b>	<b>12.2</b>	<b>12.2</b>	<b>12.2</b>	<b>12.2</b>	<b>12.2</b>
고용보험	1.1	1.0	1.0	1.0	1.0	1.0	1.0
기타 세입	1.3	1.3	1.3	1.4	1.4	1.4	1.4
<b>총 세입</b>	<b>14.4</b>	<b>14.5</b>	<b>14.5</b>	<b>14.5</b>	<b>14.5</b>	<b>14.6</b>	<b>14.5</b>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2018.2.27.), Table A2.7 일부 발췌

## 나. 세출

- 총세출은 FY2017-18 전년대비 6.1% 증가한 3,046억 캐나다달러, FY2018-19 전년대비 2.5% 증가한 3,122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FY2017-18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 지출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944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1,161억 캐나다달러 (FY2022-23)까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노인지원) 노인지원 지출은 FY2017-18 509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노인인구 전망 증가에 기인하여 향후 670억 캐나다달러 (FY2022-23)까지 증가할 전망
      - 노인지원지출은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소득보장보조금 및 수당 지급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and Allowance payments)으로 구성되며, 향후 5년간 노인지원지출은 연평균 5.6% 증가할 전망
    - (고용보험) FY2017-18 고용보험 지출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201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평균주급수당 증가의 영향으로 향후 연평균 3.6%의 완만한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
    - (아동지원) FY2017-18 아동지원지출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34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8-19부터 시작되는 급여연동<sup>3)</sup>의 영향으로 FY2022-23에는 251억 캐나다달러, 연평균 1.4%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
  -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sup>4)</sup>)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은 FY2017-18 705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에는 847억 캐나다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 (캐나다 보건지출) FY2017-18 캐나다 보건지출(Canada Health Transfer: CHT)은 371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449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FY2017-18부터 캐나다 보건지출은 명목 GDP 성장률의 3년 이동 평균에 따라 증가하며 매년 최소 3% 증가 보장

3) 2020년부터 물가연동 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예산안에서 2년 앞당긴 2018.7월부터 생계비인상에 따라 급여가 인상될 예정임

4) 중앙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출분으로 교부금 성격을 가짐

- (사회보장지출) 사회보장지출(Canada Social Transfer: CST)은 매년 3% 증가를 법에서 규정, FY2017-18 137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159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연료세 기금) 연료세기금(Gas Tax Fund)은 FY2017-18 21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23억 캐나다달러를 나타낼 전망
- (홈케어및정신보건) 2017예산에서 도입된 지방·주정부 홈케어및정신보건 지원금은 FY2017-18 3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12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직접 프로그램 지출<sup>5)</sup>) FY2017-18 직접프로그램지출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1,397억 캐나다달러, FY2022-23에는 1,493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부처 이전지출경비가 증가분의 큰 부분을 차지
  - (부처 이전지출경비) 부처 이전지출경비는 FY2017-18 441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520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운영비용) 운영비용은 FY2017-18에 새로 도입된 상이군인연금(Pension for Life for veterans) 지출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한 956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22-23에는 973억 캐나다달러로 연평균 1.1% 증가

---

5) 부처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접 프로그램 지출로 구분하여 부처에 예산 배분

<표 5> 프로그램 지출 전망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GDP대비 %)

	2016-17	Projection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b>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A)</b> <b>(Major Transfers to persons)</b>	<b>90.9</b>	<b>94.4</b>	<b>98.1</b>	<b>102.3</b>	<b>106.8</b>	<b>111.5</b>	<b>116.1</b>
노인지원(Elderly benefits)	48.2	50.9	53.6	56.7	60.1	63.5	67.0
고용보험(EI benefits) <sup>1)</sup>	20.7	20.1	20.7	21.7	22.5	23.3	24.0
아동지원(Children's benefits)	22.1	23.4	23.7	23.9	24.3	24.7	25.1
<b>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B)</b> <b>(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b>	<b>68.7</b>	<b>70.5</b>	<b>73.6</b>	<b>76.5</b>	<b>79.3</b>	<b>82.3</b>	<b>84.7</b>
건강관련(Canada Health Transfer)	36.1	37.1	38.6	40.2	41.7	43.3	44.9
사회보장관련(Canada Social Transfer)	13.3	13.7	14.2	14.6	15.0	15.5	15.9
재정균등화 교부금(Equalization)	17.9	18.3	19.0	19.8	20.5	21.3	22.1
준주 교부금(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3.6	3.7	3.8	3.9	4.0	4.1	4.2
연료세기금(Gas Tax Fund) <sup>2)</sup>	2.1	2.1	2.2	2.2	2.2	2.3	2.3
홈케어및정신보건 (Home care and mental health)	0.0	0.3	0.9	1.1	1.3	1.5	1.2
기타 재정협정(Other Fiscal Arrangements) <sup>3)</sup>	-4.3	-4.7	-4.9	-5.3	-5.4	-5.6	-5.9
<b>직접프로그램지출(C)</b> <b>(Direct Program Expenses)</b>	<b>127.6</b>	<b>139.7</b>	<b>140.5</b>	<b>142.7</b>	<b>145.3</b>	<b>147.0</b>	<b>149.3</b>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41.6	44.1	47.5	50.4	52.4	52.0	52.0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sup>4)</sup>	86.0	95.6	93.1	92.3	92.9	94.9	97.3
<b>총 프로그램지출(A+B+C)</b> <b>(Total Program Expenses)</b>	<b>287.2</b>	<b>304.6</b>	<b>312.2</b>	<b>321.5</b>	<b>331.5</b>	<b>340.7</b>	<b>350.1</b>
<b>GDP 대비 비중(%)</b>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4.5	4.4	4.4	4.4	4.5	4.5	4.5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4	3.3	3.3	3.3	3.3	3.3	3.3
직접프로그램지출 (Direct Program Expenses)	6.3	6.5	6.3	6.2	6.1	5.9	5.8
<b>총 프로그램지출</b> <b>(Total Program Expenses)</b>	<b>14.1</b>	<b>14.2</b>	<b>14.0</b>	<b>13.9</b>	<b>13.8</b>	<b>13.7</b>	<b>13.6</b>

주: 1) 실업급여, 질병급여, 출산 및 육아휴직 수당, 간병급여 등이 포함되며 고용보험 지출 중 90%를 차지

2) 지역향상기금(Community Improvement Fund)의 구성항목

3) 퀘벡 주에 대한 청소년 회복 수당, Stand Programs 대체 지불, 법정 보조금, 2005년 해외협약에 따른 지급금 등을 포함

4) 자본상각비용(capital amortization expenses)을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2018.2.27.), Table A2.8

## 4. 주요 재정정책

### 가. 평등과 성장

□ FY2018 예산안에서는 '평등과 성장'을 키워드로, 공평한 기회 확대를 통한 중산층 강화 및 그에 따른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투자를 계획

- (성장) 새로운 근로장려세제(Canada Workers Benefit)<sup>6)</sup> 도입,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 강화, 육아휴직 기간 확대(35주→40주), 남성중심의 특수분야(Red Seal Trades)에 여성진출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 투자, 공정한 세제시스템 강화 등

- 근로장려세제(Canada Workers Benefit) 강화: 기존의 근로장려세제(Working Income Tax Benefit)을 강화하여 최대 혜택급여 증대 및 급여중단소득 상향 조정<sup>7)</sup> 등 보다 많은 저소득근로자가 기존 제도보다 높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 강화: 저소득 및 미혼모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2018.7월부터 생계비(cost of living)에 연동하여 아동복지급여를 인상하게 됨에 따라 FY2018-19~FY2022-23 기간 동안 56억 캐나다달러 추가 지원

- \* 2016년 7월부터 아동 세제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과 보편적 아동복지급여(Universal Child Care Benefit)를 대체하는 신규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가 도입

- \* 현재 급여 지급액<sup>8)</sup> : (가구소득 연 30,000 캐나다달러 1자녀 기준)6세미만 자녀당 월 533.33 캐나다달러(연간 6,400 캐나다달러), 6~18세 미만 자녀당 월 450 캐나다달러(연간 5,400 캐나다달러)

가구소득이 30,000~65,000 캐나다달러 구간에 속하면 소득의 7%만큼 급여에서 삭감, 소득이 65,000 캐나다달러 초과면 추가 3.2% 삭감하며 자녀 수와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

6) 기존의 근로장려세제(Working Income Tax Benefit)를 강화하는 제도로 저소득계층의 세금경감 및 근로활동참여 증진을 목표로 함.

7) 최대 혜택급여(maximum benefit) : (독신) 1,043캐나다달러 → 1,192캐나다달러  
(가구) 1,894캐나다달러 → 2,165캐나다달러

급여중단소득(Net income where WITB is reduced to zero) : (독신)18,792캐나다달러 → 20,734캐나다달러  
(가구)28,975캐나다달러 → 32,339캐나다달러

8)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child-benefit-overview/canada-child-benefit-we-calculate-your-ccb.html>

-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 육아휴직에 5주를 추가하여 총 40주를 부모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향후 5년간 12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고 5년 후부터는 매년 345백만 캐나다달러 추가지원(2019.6월 시행예정)
  - 남성중심의 특수기술직 분야에 진출하는 여성을 위한 기술훈련을 지원하는 'Apprenticeship Incentive Grant for Women' 구축에 향후 5년간 19.9백만 캐나다달러 투자
  - 일자리창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하계일자리프로그램(Canada Summer Jobs)에 향후 5년간 448.5백만 캐나다달러 투자 등
  - 공정한 세제시스템 강화: 탈세 및 조세회피 근절, 중소기업 법인세율 감소(2018.1월 10%→2019.1월 9%)
- (진보) 캐나다 기술혁신을 위한 기업, 과학자, 연구원 및 장비 등 투자 확대
    - 캐나다 차세대 연구원(next generation researchers) 지원에 5년간 17억 캐나다달러, 실험실, 장비 및 연구 인프라 구축에 5년간 13억 캐나다달러 투자
    - 캐나다 과학자 및 연구원 지원을 위한 3개 기관(Granting Councils)<sup>9)</sup>에 향후 5년간 923백만 캐나다달러 투자
    - 연구원들의 빅데이터 접근성 향상 등 지원을 위한 'Digital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에 향후 5년간 573백만 캐나다달러 투자
  - (조화) 원주민과 조화를 바탕으로 둔 정책을 중심으로 원주민 보호를 위한 가족, 보건, 주택, 물 등에 대한 투자(FY2022-23까지 약 41억 캐나다달러 추가 지원)
    - 원주민 자녀양육 및 가족지원 강화에 6년간 14억 캐나다달러 추가지원
    - 원주민 주택 개량 및 확충 등 지원에 5년간 10억 캐나다달러 지원
      - 3년간 First Nations 주택지원에 6억 캐나다달러 추가지원 및 향후 10년간 Inuit족 4억 캐나다달러, Métis족 5억 캐나다달러 지원 포함
    - 원주민 보건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등에 5년간 15억 캐나다달러 투자

9) ①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②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③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 깨끗한 물 공급 및 보존을 위한 투자에 향후 3년간 173백만 캐나다달러 투자
- (발전) 캐나다 자연유산 보호에 지속적인 투자, 국제원조 지원 강화, 안전한 국가 구현 등의 정책에 중점투자
  - 자연보호: 2016.12월 채택된 Pan-Canadian Framework on Clean Growth and Climate Change에 12년간 57억 캐나다달러 투자 등
  - 국제원조: 신 세계여성지원정책(new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sup>10)</sup>에 5년간 20억 캐나다달러 지원, 분쟁지역 여성난민 1천명 추가 지원을 위해 5년간 2천만 캐나다달러 투자 등
  - 국민건강
    - 매년 수천명 가량이 목숨을 잃고 있는 오피오이드(opioid) 중독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31백만 캐나다달러 지원
    - 국가 의약품 보조정책(National Pharmacare) 시행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 흡연을 감소를 위한 담배세 인상(1카톤(200개피) 당 1캐나다달러 인상)
  - 안전한 국가 구현
    - 사이버 안보강화: 사이버안보센터(Canadian Centre for Cyber Security) 설립에 향후 5년간 155백만 캐나다달러, 국제사이버범죄 전담반(National Cybercrime Coordination Unit) 창설에 향후 5년간 116백만 캐나다달러, 새로운 국가 사이버안보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지원에 향후 5년간 236.5백만 캐나다달러 투자
    - 성관련 폭력(gender-based violation program) 방지 프로그램 지원에 향후 5년간 86백만 캐나다달러 지원 등

---

10) 세계여성지원정책은 UN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일환이며, 여성의 권리강화 및 양성평등이 주요 목표

<표 6> FY2018 예산안에서의 부문별 투자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Projection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성장(Growth)	0.0	-0.3	0.1	-0.3	-0.2	-0.3
진보(Progress)	0.0	0.9	1.2	1.4	1.4	1.6
조화(Reconciliation)	0.1	1.4	1.2	0.8	0.7	0.6
발전(Advancement)	4.2	1.8	1.3	1.3	1.2	0.6
기타(Other Budget 2018 Investment)	2.1	1.6	-1.1	-1.1	-0.9	0.4
총 투자	6.3	5.4	2.6	2.0	2.2	3.0

주: 1. +는 투자 증가분, -는 투자 감소분을 의미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2018.2.27.), Table A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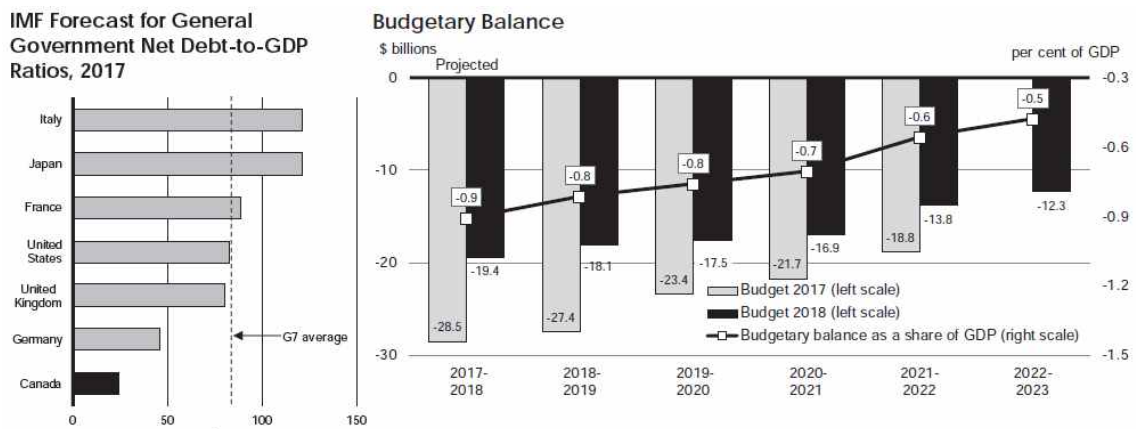
## 나. 재정건전화

□ FY2018 예산안에서는 적자재정을 편성했으나 이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며, 향후 전망기간동안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비율을 감소시킬 계획을 발표

○ IMF 발표(2017.10)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캐나다의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G7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평균의 절반 이하를 나타내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는 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해 낮은 채무의 이점을 유지할 계획

- 재정적자는 GDP 대비 FY2017-18 0.9%에서 FY2022-23 0.5%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

[그림 1] G7 국가의 GDP 대비 순채무 및 캐나다 재정수지 전망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2018.2.27.), Chart 3, 4

□ FY2018-19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

- 채무관리전략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국내외 채무, 기타 금융부채 및 관련자산의 관리에 대한 목표·전략·계획을 설정
- 채무관리의 기본 목표는 캐나다 정부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 저비용으로 조달하고 정부채권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임
- FY2018-19 연말기준 총시장채무<sup>11)</sup>는 7,550억 캐나다달러로 전년대비 4.4% 증가할 전망
  - (유가증권 및 단기국채) FY2018-19 유가증권은 약 5,980억 캐나다달러, FY2018-19 단기국채는 약 1,38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소매채무 및 외채) FY2018-19 소매채무는 약 2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8-19 외채는 약 17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표 7> FY2018-19 시장채무(Market Debt)

(단위: 연말기준, 십억 캐나다달러)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추정)	2018-19 (전망)
유가증권(Domestic bonds)	488	504	536	578	598
단기국채(Treasury bills)	136	138	137	125	138
외채(Foreign debt)	20	22	18	16	17
소매채무(Retail debt)	6	5	5	4	2
<b>총 시장채무</b>	<b>649</b>	<b>670</b>	<b>695</b>	<b>723</b>	<b>755</b>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2018.2.27.), Table A3.2

11) 캐나다의 총채무(Gross debt) 중 시장채무(Market debt)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채무관리전략에서는 시장채무관리를 주로 다룸. 예산안 및 재무결산상 채무지표는 연방채무(누적 기준)이나, 예산안에서는 이와 더불어 시장채무(유가증권, 단기국채, 외채, 소매채무로 구성)를 중심으로 중기 채무전략을 보여줌.